

장관직 떠나 IMF로 ... '한국경제 기적' 노하우, 해외 나뉘었다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8

나는 1988년 12월 5일 전면 개각으로 정부를 떠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에서 10년간 경제정책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해 오던 중 정부에 들어가 5년 넘게 경제 국정정의 중심에서 직접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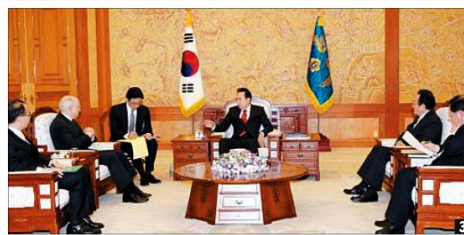
나는 정부를 떠나면 한국 경제의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 물론 한국의 성공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많은 개발도상국, 신흥경제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책자로 출판하기로 작심했다. 아울러 나의 경제 국정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많은 후발 개도국, 신흥경제국의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공유·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도 해왔다.

그래서 정부를 떠난 직후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적 두뇌집단인 브루킹스(Brookings)와 IMF를 접촉했다. 먼저 브루스 맥크로리 브루킹스 연구소장으로부터 1월 초에 회신을 왔다. 객원 학자(Guest Scholar)로 초청해 집필 활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1월 중순에는 리처드 어브 IMF 부총재가 보낸 장문의 회신을 받았다. 내가 한국 정부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미셸 칸드쉬 총재와 함께 IMF가 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하며 반가워했다. 'IMF 특별고문'이란 새 직함을 만들어 나를 초청했다. 미국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가족 모두의 의료보험과 왕복 이사 비용까지 부담해줬다.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온 IMF는 한국 경제의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IMF는 87년에 더 이상 한국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65년 이래 유지해 온 한국의 IMF 상주대표사무소를 철수시켰다. IMF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신흥경제국들에 모범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델 케이스다. 그래서 IMF는 나의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의 경험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본다.

IMF 특별고문으로 IMF에 상주하지 않아도 됐다. IMF의 요청이 있을 때 주요 개도국을 방문해 이들 나라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자문에 응하면 됐다. 아울러 IMF 스태프와 전문가들을 위한 주요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도 원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참석도 바랐다. 물론 IMF는 한국 경제에 관한 나의 집필과 기고, 대학 강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나는 64년에 유학생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 69년부터는 뉴욕에서 대학교수로 10여년간 생활했다. 도중에 1년은 영국에서 교수 생활도 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은 뉴욕이고, LA는 LA다. 미국이 아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1 1993년 2월 서울을 방문한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원(IIIE) 원장(오른쪽)과 만난 사공일 장관. 2 1998년 6월 미국을 공식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가운데)이 미셸 칸드쉬 IMF 총재(왼쪽), 제임스 올펜슨 세계은행 총재를 만났다. 3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사공일 경제특보(오른쪽 둘째)가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를 방문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 둘째)를 접견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공일 장관이 미국 체류 시 집필해 1993년 출판한 『세계 속의 한국경제』(Korea in the World Economy)와 한국어판 표지(위부터) [사진 사공일]

있다. 미국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는, 각각 특성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워싱턴DC로 마찬가지로. 워싱턴DC는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지역에 미국 연방정부와 미국 의회 그리고 IMF·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세계 모든 나라의 대사관이 집결된 특별한 도시다. 미국과 세계 경제·안보 그리고 국제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전문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내가 워싱턴DC를 택한 중요한 이유이다. 세계적 전문가들과의 친교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나는 89년 초에 미국에 와서 2월에 나는 내가 유학한 UCLA의 '저명연사 프로그램'에서 연설했다. 나를 위한 만찬에는 학생 시절부터 총장이었던 찰스 영 총재도 참석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의 명문인 디킨슨 대의 재단이사회 초청으로 세계 경제의 현안과 한국 경제에 관해 연설하고 이사회 참석 유명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도 가졌다.

89년 4월에는 뉴욕 알바니에서 노스 타 은행 그룹 초청 연설과 장시간 토론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91년 초까지 미네소타대, 조지타운대, 하버드대, UC 샌디에고대, 클레어몬트대의 맥케나스쿨, 스탠퍼드대, 네브래스카대 등 미국 유명 대학에서 학생과 교수 그리고 지역

언론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설할 기회도 가졌다.

89년 3월부터는 브루킹스 객원 연구원과 IMF 특별고문으로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5월 초에 IMF 세미나에서 '전환기 한국 경제의 도전과 대응'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7월에는 IMF의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 정책과 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 세션의 사회도 맡았다.

그리고 10월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방문해 그 나라 재무장관, 상무장관, 경제기획위원 등 고위 정책 담당자들과의 토론과 자문에 응했다. 한국의 과거 경제정책과 전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예상한 대로 높았다. 나에게는 큰 보람 있는 일이었다.

워싱턴에 정착하면서 주요 국제 행사 초청은 더욱 잦아졌다. 먼저 당시 미 정계에서 영향력이 컸던 빌 브래들리, 피트 도미니치니, 빌 로스 등 미 상원의원과 리 해밀턴 하원의원의 주도로 89년 9월에 개최되었던 '세계금융정상회의: 금융시장 개혁과 G7의 미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을 지낸 자크 아탈리, 존 화이트헤드 미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분야별 전문 지식과 구체적 정책대안 논의의 수

준은 정말 놀라웠다.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10월에 개최된 '90년대의 태평양지역: 10년 앞을 내다보다' 회의에도 라운드 테이블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른 토론자는 나와 동갑으로 가까웠던 하버드대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를 비롯해 로렌스 서머스 교수, 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 국무장관, 마크 헤트필드 미 상원의원이었다. 토론 전후에 이들과 개별적인 의견교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90년 초에는 중국 정부가 광저우에서 개최한 '경제개혁 방법론'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중국 정부 고위 정책담당자들과 따로 만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90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 락센버그 소재 국제경제연구원(IIASA) 초청으로 '경제자유화와 안정화 정책: 한국의 경험'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 인사들과의 개별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다.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5월 초에 국제경제연구원(IIIE, 현 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원장과 오찬을 같이했다. 물론 경제수석 재임 시부터 친하게 지낸 버그스텐 박사가 81년에 IIIE를 설립해 주로 무역·금융·외환 등 국제경제정책 분야의 연구와 정부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IIIE가 이미 '인사이드 더 벨트웨이(워싱턴 정·관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뇌집단'으로 워싱턴의 유명 경제지가 평할 정도로 부상해 있어 놀라웠다.

내가 한국 경제에 관한 책 집필과 함께 국제경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버그스텐 박사가 IIIE 합류를 제의했다. 다양한 경제 분야를 연구하는 대규모의 브루킹스에 비해 소수정예로 국제경제 현안에 집중하는 IIIE가 단기간 체류 목적의 내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합류를 결정했다.

물론 맥크로리 원장의 양해를 얻었다. 그리고 89년 9월부터 나는 IIIE의 초청연구원(Visiting Fellow)으로 『세계속의 한국 경제』(Korea in the World Economy) 집필에 집중하게 됐다. 집필을 거의 마무리한 91년 여름에 귀국했다. 이 책은 그 후 수차례의 수정과 편집 과정을 거쳐 93년 1월에 IIIE에서 출간됐다. 이 책의 첫 부분은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원조당국과의 의마치 경제 발전에 관한 한 '희망 없는(basket case)' 나라로 치부하던 한국이 경이적인 성공을 거둔 요인과 교훈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정부의 경제 국정 아젠다를 다뤘다. 곧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논한 것이다. 국정 우선순위를 다시 경제에 두고 교육 개혁과 인재 양성,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93년에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김영사에서 출판했다. 94년에는 일본 동양경제신문사가 일본어판 『한국 경제의 새로운 구조』(韓國經濟 新時代の構図)를 출간했다. 다행히도 이 책은 해외 유명 대학에서 한국학과 경제발전론 분야의 교재로 많이 쓰인 것으로 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위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